

## 방법 ( 비디 ), 법 ( 비단 ), 축복 ( 바르단 ).

오늘, 밥다다는 사랑을 가진 모든 자녀들의 사랑에 응답하려고 와야 했다. 온 세계에 있는 자녀들의 사랑과 기억의 소리가 서툰 리전의 밥다다에게 달콤한 멜로디의 형태로 도달했다. 자녀들이 사랑의 노래를 부르듯이 밥다다도 역시 자녀들을 칭송하여 노래 부른다. 자녀들이, “저희는 사이클 전체를 통틀어 그런 밥다다를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라 하듯이, 밥다다도 역시 사이클 전체를 통틀어 그런 자녀들을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한다. 너희는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의 그토록 다정한 마음과 마음의 대화를 끊임없이 듣느냐? 너희와 아버지는 결합된 형태로 있지 않느냐? 이 형태는 쉬운 요기의 형태라고 알려져 있다. 너희는 요가를 해야 하는 자들이 아니라, 변함없이 결합되어 있는 자들, 즉 끊임없이 아버지와 함께 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그런 단계를 경험하느냐, 아니면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느냐? 너희가 유년기에 한 약속이 무엇이었느냐? 너희는 함께 머물겠다고, 즉 함께 살겠으며 함께 돌아가겠다는 약속이었다. 너희들은 이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확고하냐? 너희는 육신의 형태에게 부양 받을 권리를 가진 영혼들이다. 너희의 행운에 대해 분명하게 생각해보고 이해해라.

(다다 람과 사비트리 다디의 가족이 밥다다 앞에 있었다.) 수백만 중에서 한 손으로 꿈을 만큼 소수만이 행운의 공여자 앞에 친히 온다. 이제 때가 오면 너희의 이 행운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아디피타 (첫 번째의 아버지)를 찾는 것은 고귀한 행운의 표시다. 너희는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들이므로 한결같고 쉬운 요기들이 아니냐? 너희들은 끊임없이 날아다니는 단계로 들어가는 천사의 형태냐?

오늘 너희는 중요한 날에 와서 축하해달라고 바바를 초대했다. 너희는 최고로 중요한 날을 축하하며 또 높은 가운데서 최고로 높은 아버지를 만나고 있다. 중요한 날이란 축제의 날이라는 뜻이다. 중요한 날을 축하할 때 나쁜 날들은 끝난다. 너희는 오늘 하루만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축하한다, 즉 너희는 변함없이 열성과 열의를 가지고서 영원한 아버지, 영원한 날, 영원한 기념행사를 축하한다. 중요한 날을 축하한다는 것은 너희 자신을 모든 이들 가운데서 항상 최고로 위대하게 만든다는 뜻이다. 단지 이를 축하할 뿐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되어야 하고 남들도 역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이 중요한 날 너희는 모든 영혼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려느냐? 어떤 영혼이 너희와 접촉하게 되든, 그들에게 신의 영적인 사랑, 힘, 미덕들, 전적인 너희의 협조를 선물로 줘서 그들이 어떠한 결핍도 경험하지 않을, 그렇게 충만한 영혼들이 되게 해라. 너희는 그런 선물을 줄 수 있느냐? 너희들 스스로 충만하냐? 남들에게 이것을 주기 위해서는 너희가 먼저 모든 것을 다 내면에 쌓아둬야 하는데, 오직 그제야 너희가 비로소 그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앗차, 오늘 너희들은 선물을 주고 또 선물을 받으려고 왔다. 너희는 선물을 그저 받기만 하겠느냐, 아니면 선물을 주기도 하려느냐? 삭티 군대는 뭘 하겠느냐? 너희는 주고받는 것을 즐기느냐, 그저 받기만을 즐기느냐? 공여자에게 주는 것이 주는 것이냐, 받는 것이냐? 아버지가 어째서 너희에게 받느냐? 그것을 변형시켜서 다시 너희들에게 수백만 배로 돌려주려는 것이다. 아버지에게 그것이 필요하겠느냐? 아버지가 가진 것은 뭐든 다 자녀들에게 주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아버지는 공여자, 법 제정자, 축복의 공여자다. 자녀들은 자기들의 행운에 대해서 아버지가 아는 만큼 잘 알고 있지 않다. 너희 자신을 변함없이 강력하게 만들도록 복 받은 너희의 이 날들을 끊임없이 기억해라. 이 가족 전체가 복 받은 가족인데, 나무는 이 가족의 도구인 씨앗을 통해서 이제껏 자라왔으며 앞으로 자라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 영혼의 고귀한 소망으로 가족 전체가 송강기를 선물로 받을 수 있었는데, 그녀가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순수성이라는 물로 인해 눈에 보이는 결실이 나타나고 있다. 이해하느냐? 육신의 형태, 즉 어머니 구루, 도구로서, 그녀는 (다디 사비트리) 여기에 앉아 있다. 어머니는 구루가 되었고 아버지는 송강기를 선물로 주었다. 이 가족은 이제 뭘 해야겠느냐? 아버지를 따라라! 너희는 아무 것도 버릴 필요가 없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앗차.

이중의 외국인 자녀들도 역시 여기에 왔다. 심지어 밥다다도 지금 외국인이다. 아버지 브라마도 역시 지금 외국 나라에 있다. 타지에서 온 이가 (밥다다), 외국에서 온 다른 이들 (2중의 외국인들)을 만나는 일은 참으로 좋다. 밥다다는 자녀들 모두에게서 한 가지 특질을 보며 아주 기쁘는데, 그 중에서도 외국의 도구 자녀들의 특질 하나를 보면서 특히 더 기쁘다.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밥다다와의 만남을 축하하려는 이중의 외국인 자녀들의 특별한 바람과 사랑이 오늘 특별히 아버지에게 도달했다. 물질세계의 관점에서 오늘은 특히 외국인들에게는 특별한 날이다. 너희는 톨리와 단것들을 먹었느냐, 아니면 지금 그것들을 먹기를 원하느냐? 밥다다는 너희에게 톨리와 단것들을 먹여서 너희를 아주 달콤하게 만든다. 너희들 모두 다정해지지 않았느냐? 밥다다는 모든 곳에서 온 자녀들 모두와 마두반 주민들 전체의 사랑에 대해 축복해주고, 또 아버지가 항상 결합된 채 머무는 유산의 형태로 보답해주고 있다. 너희는 2중의 권리를 가진 자들이다. 너희는 유산도 받고 축복도 받는다. 뭔가 어려울 때는 밥다다를 축복의 공여자의 형태로 인식해라. 축복의 공여자에게서 축복을 받을 때는 어려운 것도 아주 쉬워져서 너희는 그것의 실질적인 유익을 경험한다.

오늘 이 날의 특별한 구호를 항상 너희의 인식 속에 간직해라. 방법 (비디), 법 (비단), 축복 (바르단)이라는 이 세 단어를 기억해라. 올바른 방법을 쓰면 너희는 쉽게 성공의 화신이 된다. 법을 사용하면 너희는 세계의 창조자가

된다. 축복과 더불어 너희는 축복을 주는 형상들이 된다. 이 세 마디 말은 너희를 한결같이 강력한 상태로 만들 것이다. 앗차.

오랫동안 잃었다가 지금 찾은 온 사방의 모든 자녀들, 모든 이를 완전하게 만드는 높은 중에서 최고로 높은 아버지의 가장 위대한 자녀들에게, 그런 입법자 마스터에게, 이미 축복 받은 자녀들에게... 마야에게 이미 작별을 고한 그런 자들에게 축하를 보내며, 축하와 더불어 오늘 자녀들의 열성과 열의에 대해서도 각별한 축하를 보내고, 육신의 형태와 미묘한 형태로 아버지 앞에 머무는 자녀들 모두에게, 넘치는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밥다다가 디디지와 다디지를 만나심.

너희 둘을 볼 때 밥다다는 뭘 기억하겠느냐?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지만, 먼저 너희는 아버지의 눈 속의 빛이다. “만일 빛이 없다면 세상도 없다”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밥다다도 역시 그러한 빛의 보석들을, 수립이라는 과업을 위한 특별한 영혼들로 본다. 카라반하르 (남들을 통해서 행위를 행하는 이)가 모든 것을 다 행하고 있지만, 그는 도구인 자녀들을 카란하르 (행동하는 자)로 만든다. 아버지와 자녀들 양쪽 모두 “카란카라반하르”라는 용어로 합쳐져 있다. 자녀들의 손이 사용되어 아버지의 일이 행해진다. 손을 (협조의 손길) 내밀 절호의 기회를 받은 것은 오직 너희 자녀들뿐이다. 최대의 과업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느껴지느냐? 모든 것을 다 행하는 분이 그것이 완수되게 하는 것을 너희는 경험하지 않느냐? 그는 너희가 도구로서 전진하게 만들고 있다. 이것이 너희들의 마음에서 항시 흘러나오는 소리다. 카라반하르의 형태로 밥다다는 자녀들을 모든 행위에서 끊임없이 함께 한다. 그가 너희와 함께 있느냐, 아니면 가버렸느냐? 그는 그저 숨바꼭질 놀이를 할 따름이다. 그는 이 놀이를 오직 자녀들과만 하지 않겠느냐? 놀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놀이는 손뼉 치는 것으로 시작된다. 드라마의 손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숨바꼭질의 게임이 시작되었다.

자 이제 스위트홈의 문들이 언제 열리겠느냐? 너희가 국제회의 날짜나 강당을 지을 일정을 정해 두었듯이, 그것을 위한 (문을 열려는) 계획도 역시 세워두지 않았느냐? 문을 열기 전에 너희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겠느냐, 아니면 아버지가 그것까지 해야겠느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느냐? 아버지 브라마도 항시 준비되어 있다. 지금 그에게는 항시 준비되어 있는 동반자들이 필요하다.

너희는 여덟 보석의 염주를 준비할 수 있느냐? 그것을 지금 당장 만들 수 있느냐? 여덟 보석의 염주가 만들어지면 다른 모든 것들이 그 뒤를 이어 자동적으로 준비될 것이다. 여덟 명이 항시 준비되어 있느냐? 그 이름들을 명단으로 작성해서 바바에게 보내라. 그들 8명이 항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모든 이가 다 확인해줘야 한다. 아버지, 브라민 가족, 세계가 그들의 봉사에 대해 만족하고 그들을 좋아해야 한다. 이 세 가지 특질을 가질 때 너희는 항시 준비되어 있다고 불릴 수 있다. 먼저 팔찌를 준비해라, 그러면 큰 염주가 준비될 것이다. 앗차.

밥다다가 사비트리 다디를 만나심.

너는 은밀한 축복들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보고 있을 테지? 네가 누구인지 이제 이해하느냐? 봉사할 줄 아는 자들의 명단에서 네 이름이 앞쪽에 있다고 여기겠지? 너는 봉사의 결실을 가시화하는 도구가 되었다. 씨앗은 도구라 불릴 것이다. 봉사할 줄 아는 자들의 명단에서 네 이름이 상당히 앞쪽에 있는데, 다만 네가 그것을 때때로 잊을 뿐이다. 밥다다가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네게 달리 무엇이 더 필요하냐? 모든 이의 봉사가 다 똑같지는 않다. 영혼들은 다양하고 봉사 방법도 여러 가지다. 많이 생각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언제나 네 자신을 아버지에게서 가까운 보석이라고 여겨라. 너는 태어났을 때부터 권리를 가졌다. 너는 태어난 순간부터 빠르게 가지 않았느냐? 너는 태어난 순간부터 가까이 머무는 축복을 받았다. 육신의 형태에 가까이 머물 축복을 받은 자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그들의 수를 세어봐라, 그러면 이 축복을 받은 영혼들을 찾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아버지 가까이에 있다고 여기며 계속 전진해라. 네가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든, 뭘 할 수 있든, 그것은 유익하다. 생각은 하지 마라! 낭비적인 생각을 벗어나 자유롭게 지내라! 아버지는 변함없이 함께 하는 동반자로서의 책임을 계속해서 다 하겠다고 이미 약속했다. 생각마저도 아버지에게 다 맡겨라. 봉사가 늘어날 것인지 여부를 아버지는 안다. 그것이 늘지 않는다 해도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고 네게 있지 않다. 이 정도로 태평하게 지내라. 너는 생각들을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누구의 책임이냐? 너는 오랫동안 잃었다가 지금 다시 찾은 특별한 자녀다. 아버지는 참으로 극진한 사랑을 가지고 너를 찾아다녔다. 바바는 온 세상 전체에서 봉사를 위한 주된 보석으로 너를 골랐다. 그러므로 이것을 잊지 마라. 앗차.

밥다다가 사비트리 다디의 가족을 만나심.

너희들 모두 2종의 유산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세상의 아버지에게서 고결한 생각이라는 보물을 받았고, 팔로킥한 아버지의 유산도 역시 받았다. 너희는 또 미묘한 아버지에게서도 유산을 받았다. 너희는 동시에 세 가지 유산을 다 받았다. 너희들은 아버지 세 분 모두에게 희망의 등불이다. 어느 경우든 자녀들은 가문의 등불이라고 불린다. 너희는 가문의 등불이 되었다. 하지만 이것과 더불어 이제는 세계를 위한 등불이 되어라. 너희들의 이마에서 행운의 별이 끊임없이 빛나고 있다. 밥다다는 그러한 용기를 지닌 영혼들을 한결같이 돕는다. 너희가 생각을 가질 때마다 아버지는 거기에 현존한다. 너희가 모든 과제를 아버지에게 맡기면 그는 그의 과업을 안다. 너희들은 변함없이 더블 라이트한 천사이며 관리인으로 머물고 항시 가벼운 상태를 (마음의 짐이 없이) 유지할 것이다. 너희의 마음이 깨끗할 때는 너희의 소망이 성취된다. 고결한 생각에는 반드시

성공이 있다. 자녀의 고결한 생각 하나에 대한 보답으로 아버지는 수천 개의 고귀한 생각들을 결실로 준다. 너희는 단 하나에 대해 수천 배를 받는다. 이제껏 아버지에게서 받은 보물들을 계속 나눠줘라. 위대한 기부자가 되어라. 너희들의 보물창고에 찾아오는 자 누구도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마라. 지식의 토대는 이미 씨가 뿌려졌고 그 씨앗은 이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앗차.

작별할 때 밥다다는 자녀들 모두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녹음하셨음.

밥다다는 모든 곳에 있는, 사랑하고 있는 자녀들 모두에게서 사랑과 기억과 환영인사를 받았다. 자녀들은 모두 밥다다의 마음의 옥좌에 앉혀졌다. 그가 어찌 그의 가슴의 옥좌에 앉아 있는 자들을 잊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자녀들은 한결같이 그와 함께이고, 그와 함께 지낼 것이며 그와 함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밥다다는 봉사에 대한 모든 자녀의 열성과 열의에 대한 소식과 봉사의 성장에 대한 소식을 계속 듣고, 또 그들이 마야의 정복자가 되고 있다는 소식도 듣는다. 각 자녀 하나하나를 마하비르가 되었고, 마하비르로서 승리의 깃발을 날리고 있다. 그러므로 밥다다는 너희의 승리에 대해 너희 모두를 축하하고 있다. 너희를 축하한다! 너희들은 열성과 열의를 가지고 모든 날들 가운데 최고로 중요한 날을 높은 중에서 최고로 높은 아버지와 함께 끊임없이 보내고 있으며, 너희는 미래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중요한 날을 축하할 것이다. 바바가 친히 너희 이름을 하나씩 거명하며 너희 자녀들 각자에게 사랑과 기억을 보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만남을 축하하는 동안 밥다다는 너희 자녀들을 각자의 이름으로 앞에 보며 너희들 하나하나에게 사랑과 기억을 주고 있다. 앗차.

**질 문 :** 냉방장치가 되어있는 좌석을 예약하는 방법은 무엇이나?

**대 답 :** 에어컨이 되어있는 좌석을 예약하려면 바바가 너희에게 준 모든 조건들을 한결같이 계속 지켜나가라. 조건들 중 단 하나라도 지키지 않는다면 에어컨이 되어있는 좌석을 받을 수 없다. 노력해보겠다고 얘기하는 자들마저도 이 자리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질 문 :** 너희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과 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방식에서 어떤 미덕 한 가지를 가지면 모든 이가 너희를 사랑하겠느냐?

**대 답 :** 남들을 너희보다 앞서게 만드는 미덕이다. “당신 먼저”라는 미덕은 너희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과 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방식에서 사랑 받게 만든다. 이것은 또 아버지의 주된 미덕이기도 하다. 아버지가 이르는데, 자녀들아, 너희들이 먼저다! 그러니 이 미덕에서 아버지를 따라라.

**Blessing:** 무한한 무관심의 태도를 가짐으로써 왕족다운 형태의 “내 것”을 끝내는 사랑하면서도 초연한 자가 되어라.

때가 가까움에 따라 오늘날의 주변환경에 대한 무한한 무관심이 필수적이다. “진정한 무관심의 태도”의 의미는 너희의 모든 관계와 연결에 있어서 너희가 초연한 만큼 사랑이 넘친다는 것이다. 겸손함을 가진 초연하면서도 사랑을 가진 자들은 “내 것”이라는 어떤 의식도 가질 수 없다. 현재 “내 것”이라는 의식이 왕족다운 방식으로 늘어났다. 어떤 사람은 “이것은 내 일이다. 이것은 내 장소다. 내가 나의 행운에 의해 이 모든 시설들을 받았다”라고 말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 그런 각종의 왕족다운 형태의 “내 것”이라는 의식을 모두 끝내라.

**Slogan:** 남들에 관해 생각하고 남들에 의해 영향 받는 것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자기 자신과 남들에 대해 순수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 음 산티 O M S H A N T I \*\*\*